



kt 김진욱 감독에게 2018시즌은 과정보다 결과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그래서인지 올해 스프링캠프에선 kt 감독의 독기가 느껴진다. 사령탑의 달라진 눈빛에 선수들 역시 긴장하고 있다. 스프링캠프 도중 kt 감독을 중심으로 선수단 미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 | kt 위즈

“눈빛부터 달라져라”...김진욱 감독의 살벌한 독기훈련

(kt)

“기회·경험 충분했다”...결과중심 변화
3년 연속 최하위에 ‘악순환 골기’ 나서
봄캠프부터 선수단에 투지·땀심 요구

kt 김진욱(58) 감독은 2018시즌을 앞두고 자신
의 지도 철학에 한 차례 큰 변화를 줬다. 그는 평소
인자한 웃음과 정 넘치는 말투로 선수들에게 항상
먼저 다가가는 ‘덕장’으로 불린다. 지난 시즌까지
만 해도 ‘결과’ 보다는 ‘기회’, ‘성적’ 보다는 ‘경험’

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령탑이었다.

그러나 kt 감독이 2018시즌을 앞두고 달라졌
다. kt 감독 2년째를 맞아 막연한 기회 제공이
아닌, 결과를 통해 팀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천
명했다. kt 감독은 “시즌 종료 전까지 5할 승률
을 기록 하겠다”며 목표부터 명확하게 내걸었
다. 3년 연속 리그 최하위에 머문 팀의 ‘악순환’
을 어떻게 해서든 끊어내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지난 1월 29일(한국시간)부터 미국 애리조나
에 1차 스프링캠프를 차린 kt는 2월 21일까지

20일 넘게 기술 및 체력 훈련에 온 힘을 쏟았다.
선수들은 미국 중부의 뜨거운 태양빛에 이미 모
두 검게 그을린 상태다. 포수 이해창은 “온갖 방
법을 총동원해도 도저히 소용이 없더라”라며 훈
련의 고단함을 에둘러 표현했다.

kt 선수단은 하루 휴식을 취한 뒤 23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노로 이동해 샌 마누엘
스타디움에서 2차 스프링캠프에 돌입했다. 마
이너리그 연합팀 및 NC 등과의 연습경기를 통
해 실전 감각을 하루빨리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kt는 25일에 열린 마이너리그 연합팀과의
2차 스프링캠프 첫 연습경기에서 5-5 무승부를
기록했다. 5회초까지 0-3으로 끌려갔으나 5회
말과 6회말에 4점과 1점을 뽑으면서 역전에 성
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록 9회 2실점으로 승
리에는 실패했지만, 땀심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기였다.

kt 감독은 경기 후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집중
도가 좋았다. 투수와 타자를 모두 조금씩 컨디션

이 올라오는 모습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2차 캠프
는 연습경기 일정이 대부분이다. 1차 캠프에서
본인들이 얻은 것을 이제는 실전에서 써먹을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독으로서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회 이후 달라진 눈빛을 보여
달라’는 얘기는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도 해당된
다. 이미 시즌을 위한 평가는 시작했다. 최종 평가
인 시범경기까지 선수들 모두 투지있는 모습을 보
여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샌 버나디노(미 캘리포니아 주) |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송민섭 “어떤 상황에도 핀치득점 올린다”

(kt)

(결정적인 득점)

베이스볼 피플

제대하나 확 바뀔 kt...더 좁아진 외야자리
마이너리그팀과 경기 3도루·2득점 존재감

‘전역’은 남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휴
가’라 했던가.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
니지만 적어도 한 남자에게 만큼은 강하게 유효
한 말이다. 전역과 동시에 피 달리는 1군 잔류
경쟁을 벌이고 있는 kt 송민섭(27)의 이야기다.

송민섭은 2014 kt 자유선발을 통해 2015년에
마법사 군단의 유니폼을 입었다. 선린중~선린
인터넷고~단국대를 나온 그는 소위 요즘 보기
드문 대졸 자원이자. 1991년생으로 올해 나이는
만 27세. 빠른 발과 폭넓은 수비를 자랑하는 그
는 신인시절인 2015년에 프로 1군 무대에서
28경기를 소화했다. 주로 대주자와 대수비로 나
서 쓸쓸한 활약을 펼치며 kt의 미래 자원으로 큰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여느 프로선수들이
대부분 그렇듯 송민섭 또한 ‘1% 아쉬움’을 가지
고 있는 선수였다. 베테랑이 버티고 있는 주전
외야진에 공격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에는 다소 활약이 미미했다.

고심 끝에 그는 입대를 결정했다. 순리대로
제 길을 가다보면 언젠가 자신에게도 급속같은
기회가 올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어서였다.
그러나 인생이란 게 역시 항상 마음 먹은대로 풀
리지는 않는다. 2017년 9월 전역을 신고한 그는
타이밍 좋게 2018시즌을 앞두고 1군에 복귀했
다. 그러나 2년 만에 돌아온 팀은 너무나도 많은

게 바뀌어 있었다.

당장 즉시전력감으로 볼 수 있는 외야자원들이
여럿 영입됐다. 프리에이전트(FA)를 통해 유
한준이 합류했고, 2017시즌에는 새로운 외국인
타자 델 로하스 주니어가 영입됐다. 2018년 신
인 강백호의 존재감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송
민섭이 설 자리는 다시 좁아졌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매우 침착한 모습을 보였
다. 그는 “군대를 가기 전까지는 정말 막연하게
야구를 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 잘 하자!’는
생각뿐이었는데, 지금은 분명한 ‘내 색깔’을 가
지고 야구에 임하려 한다”고 말했다. 본인이 직
접 밝힌 자신의 야구 색깔에 대해서는 “어느 위
치에서든 내 장기를 심분 살리는 것”이라고 당
당하게 대답했다. 송민섭은 “팀을 위해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게 바로 득점이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핀치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스프링캠프에서 일찌감치
지켜나가고 있다. 25일(한국시간) 미국 샌 마누
엘 경기장에서 열린 마이너리그 연합팀과의 연
습경기에서 대주자로 나서 무려 3도루와 2득점
을 기록했다.

송민섭은 “나는 정규시즌에 임한다는 각오로
연습경기를 뛰고 있다. 지금부터 성공률을 쌓아
놓아야 진짜 시즌에 들어갔을 때 자신감이 붙는
다. 서두른다는 개념이 아니다. 탄력을 일찍 받
고 싶은 마음뿐이다. 서서히 몸 컨디션을 끌어
올리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기량에 올라섰을 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나”고 말했다.

샌 버나디노(미 캘리포니아 주) | 정은성 기자



kt 송민섭은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을 시즌 한 단계 성숙해진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 스프링캠프 연습경
기에 마치 정규시즌처럼 달려드는 이유다.

사진제공 | kt 위즈

KBO리그 오키나와 연습경기 일정

날짜	경기	구장
2.26(월)	롯데-SK	구시카와
	LG-삼성	아카마
2.27(화)	한화-LG	이시카와
2.28(수)	롯데-삼성	아카마
3.1(목)	한화-KIA	킨
	롯데-삼성	아카마
3.2(금)	SK-KIA	킨
3.3(토)	LG-KIA	킨
	롯데-SK	구시카와
	한화-삼성	아카마
3.4(일)	한화-SK	구시카와
3.5(월)	KIA-삼성	아카마
	롯데-LG	이시카와
3.6(화)	SK-LG	이시카와
3.7(수)	롯데-한화	고친다
	LG-삼성	아카마
3.8(목)	SK-한화	고친다

※총 6개 구단(KIA·롯데·SK·LG·한화·삼성) 참가
※뒤쪽이 홈팀

월캠 투 ‘오키나와리그’

KBO 6개 구단, 오키나와서 총 17경기

새 시즌에 대비해 전력을 가다듬고 있는 KBO
리그의 6개 구단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시범경기
급 연습경기’에 돌입한다. 일명 ‘오키나와리그’다.
26일 롯데-SK, LG-삼성의 2경기를 시작으로 시
범경기 개막(3월 13일) 전인 다음달 8일까지 총
17경기가 이어진다.

올해 KBO리그는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케임
(8월 18일~9월 2일)의 영향으로 페넌트레이스 개
막을 예년보다 일주일에서 열흘 가량 앞당기는 한
편 8월 16일부터 9월 3일까지는 일시적으로 휴식
기를 보낸다. 시범경기 일정도 축소했다.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팀당 8경기, 총 40경기에 그친
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주목도가 높아진 오키
나와리그가 각 팀의 정규시즌 준비과정에서 차지
하는 비중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오키나와에는 지난해 정규시즌-한국시리
즈 통합 챔피언 KIA를 필두로 롯데, SK, LG, 한
화, 삼성 등 6개 팀이 모여 있다. 1차 스프링캠프를
호주 시드니에 차렸던 두산은 일본 미야자키, 미국
애리조나를 찾았던 NC와 kt는 나란히 LA로 옮겨
마지막 퍼즐조각 맞추기를 진행한다. 넥센만 다음
달 5일 귀국할 때까지 스프링캠프지 교체 없이 애
리조나에서 훈련한다. 오키나와에서 만난 6개 팀은
일본프로야구 팀들과의 연습경기를 대부분 마친
만큼 KBO리그 팀들끼리 맞붙어 전력을 점검한다.

팀별로는 KIA만 4경기고, 나머지 5개 팀은 6경
기씩이다. KIA의 경우 히로시마, 주니치, 한신,
요미우리, 요코하마, 니혼햄, 라쿠텐 등 일본프로
야구 7개 팀과 이미 8차례나 집중적으로 연습경기
를 치렀다. 이에 따라 귀국을 앞두고는 페이스 조
절 차원에서 오히려 연습경기 빈도를 줄였다. KI
A의 일본팀 상대 연습경기 전적은 2승6패다. 연
습경기라 의미를 둘 필요는 전혀 없다. 설을 전후
로 매일 연습경기를 펼치느라 피로도가 누적된 결
과일 뿐이다. 해외에 스프링캠프를 차린 10개 구
단은 3월 8~10일 일제히 귀국한다. 그 전까지 남
은 2주 가량 실전 모드로 전환해 훈련 성과를 확인
한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전 포지션 경쟁구도 만든 두산 외인 파레디스

주 포지션 외야수...“내야수비도 자신있다”

‘2루수’ 지미 파레디스(30)가 두산 전 포지션에
치열하면서 건강한 내부경쟁을 불러오고 있다. 파
레디스는 2015시즌 이후 KBO리그 팀들이 꾸준
히 관심을 보인 외국인 타자다. 가장 큰 강점은 내
·외야 다양한 포지션이 가능하고 스위치 타자라
는 특별한 능력이다.

파레디스의 주 포지션은 코너 외야수다. 그러나
1루와 3루 수비도 가능하다. 또한 아마추어시절
내야 전 포지션을 맡았다. 두산 코칭스태프는 호주
에서 치른 1차 스프링캠프에서 파레디스의 2루 수
비를 집중 점검했다. 20일 청백전에서는 실제로
백업 2루수로 투입되기도 했다. 김태형 감독은 파
레디스가 팀에 합류 한 뒤 “내외야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김재환에게 지명타자를 맡기는 등 다양한



파레디스

전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kt 감독의
구성처럼 파레디스가 1루수로 나서면 오재일이 지명타자,
우익수를 맡으면 최주환이 지명타자
로 타선에 설 수 있는 등 상대 팀에
따른 타순이 가능해진다.

스프링캠프에서 시험되고 있는
2루수 카드는 지난해 극심한 타격 슬럼프를 겪은
오재일의 보충이 될 수 있다. 파레디스는 “미국에
서 주로 외야로 뛰었지만 원래 내야수 출신이다.
내야 외야 수비 모두 자신있다”고 말하며 수비 훈
련에 열중이다. 25일 일본 미야자키로 옮긴 두산
선수단이 이제부터 실전 위주의 2차 스프링캠프
를 치른다. 시범경기에 앞서 김태형 감독이 구상
하는 2018시즌 수비 포지션이 다양하게 시험될 전
망이다. 미야자키(일본)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23년 전통의 중앙회원권의 명품과 신뢰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무기명 회원권을 선보입니다.
격이 다른 골프서비스 문화를 느껴보십시오.

무기명회원권 특별모집 格

2월 가입 특혜!
“태국 무료 골프 투어”
3박 5일

구분	플래티늄
입회금액	1억원
회원매액	무기명 4인1팀 정회원가로 이용 주말예약 월2팀 보장(년18팀) 이용요금 - 1팀 그린료 20만원(1인5만원)
이용기간	3년 만기 후 보증금 100% 반환

지정계좌 : 기업은행 069-110097-01-018
에 금 주 : 중앙멤버스(주)
*임의금주 지정계좌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그 외에 개인 은행계좌 또는
현금 입금으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회보증금
100%
지급보증서
발행

명문골프장
골프타워
예약보장

회원 전용
예약실 운영

다양한
골프장 라운딩

전화상담 02-556-7000
www.jamembers.com

중앙레저그룹 / 중앙회원권 / 중앙멤버스